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시작된 CPL 이라는 언어에서 BCPL(Basic CPL) 이 탄생하였고, BCPL이 미국으로 물건너와 켄 톰슨이 'B' 라는 언어를 만든 뒤에, 같은 벨 연구소의 데니스 리치가 최종적으로 'C'라는 이름으로 언어를 만들었다. 참고로, CPL의 'C' 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C 를 뜻했다가 후에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과 조인트 프로젝트가 된 이후에는 'Combined' 를 뜻하게 되는데, Stroustrup 의 회고에 의하면 저건 윗분들의 생각이고, 자신들에게 있어서 'C' 는 언제나 CPL의 언어 디자이너였던 Christopher Strachey였다고 한다. BCPL을 거쳐 'B' 가 된것은 '벨' 연구소의 B를 딴 것. 그리고 C가 되면서 한때는 프로그래머 유머로 'C' 다음 언어가 과연 'D'일지 'P'일지 묻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C++같은 것도 나왔고, Ansi C, C99, C0xC11[2] 등등등[3]으로 가지를 뻗으며 진화중인 현재의 C언어에게는 이미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다. 사실 D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기는 있다. 벨 연구소가 아닌 디지털 마르스(Digital Mars)에서 만든 것이기는 하지만. ABA Games 의 게임들 대부분도 D로 만든 것이다.

최초의 C 컴파일러는 뭘로 쓰였을까? 닭이 먼절까 달걀이 먼절까? 같은 문제 같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어셈블러로 쓰였다. B언어를 붙잡고 여러번 씨름하다가 나온 부산물 중 하나가 C 컴파일러고, C 역시 리치에 의해 여러번 리파인 되었다.

이 문제가 유명해진 이유는 최초의 C컴파일러 중 하나가 C인터프리터로 개발되었으며 그렇게 개발된 컴파일러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역시 또 그 컴파일러를 사용했기 때문이다. 혹자는 이것을 "진흙탕에 빠진 사람이 자신의 구두끈을 잡아당겨 빠져나온 격"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.[4][5]

참고로 ++은 그 변수를 1증가시켜 대입하는 연산자이다. 다시말해 C++에서 ++은 C를 1 증가시켜 대입했다는 말. C#에서 #은 ++++이다(++이 위 아래로 두개) 또한 C?, 그러니깐 음악에서도 의미를 따왔다.